맛따라 멋찾아!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

첫눈이 내리면서 본격적인 겨울로 들어섰다. 가을바람에 맞서 그나마 남아있던 길가 가로수 나뭇잎도 모두 떨어져버린 지금, 가슴을 휑하게 만드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들로 강으로 사색을 위한 여행을 떠나는 것이 어떨까.

42 초겨울 사색 여행

나는 자연속으로

섬진강 벗삼아 가는 강길 여행

섬진강은 총 길이 212.3㎞로 우리나라에서 아홉 번째로 긴 강이다. 전북 진안 마이산에서 발원하여 곡성군 옥과면 합강리에서 옥과천과 처음 만난다. 그리고 곡성읍 동산리에서 남원으로부터 내려오는 요천, 조천수와 합류하여 다시 오곡면 압록리에서 보성강과 또 다시 합류, 구례와 하동, 광양을 거쳐 남해로 흘러든다. 강을 왼편에 두고 강과 함께 아래로 이어진 도로를 따라 가며 섬진강 자연학습원과 태안사, 조태일 시문학관을 둘러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섬진강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섬진강 참게 요리다. 감칠맛으로 입맛을 돋워주는 밥 도둑 참게장, 게장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게장 중에서도 민물에서 자라는 참게장을 으뜸으로 꼽는다. 바다에서 자란 꽃게보다 크기는 작지만 껍질이 연하고 감칠맛이 있기 때문이다. 곡성은 맑은 물에서만 자란다는 자연산 참게를 직접 채취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곳 중 하나다.

육지 끄트머리이자 시작점 땅끝 해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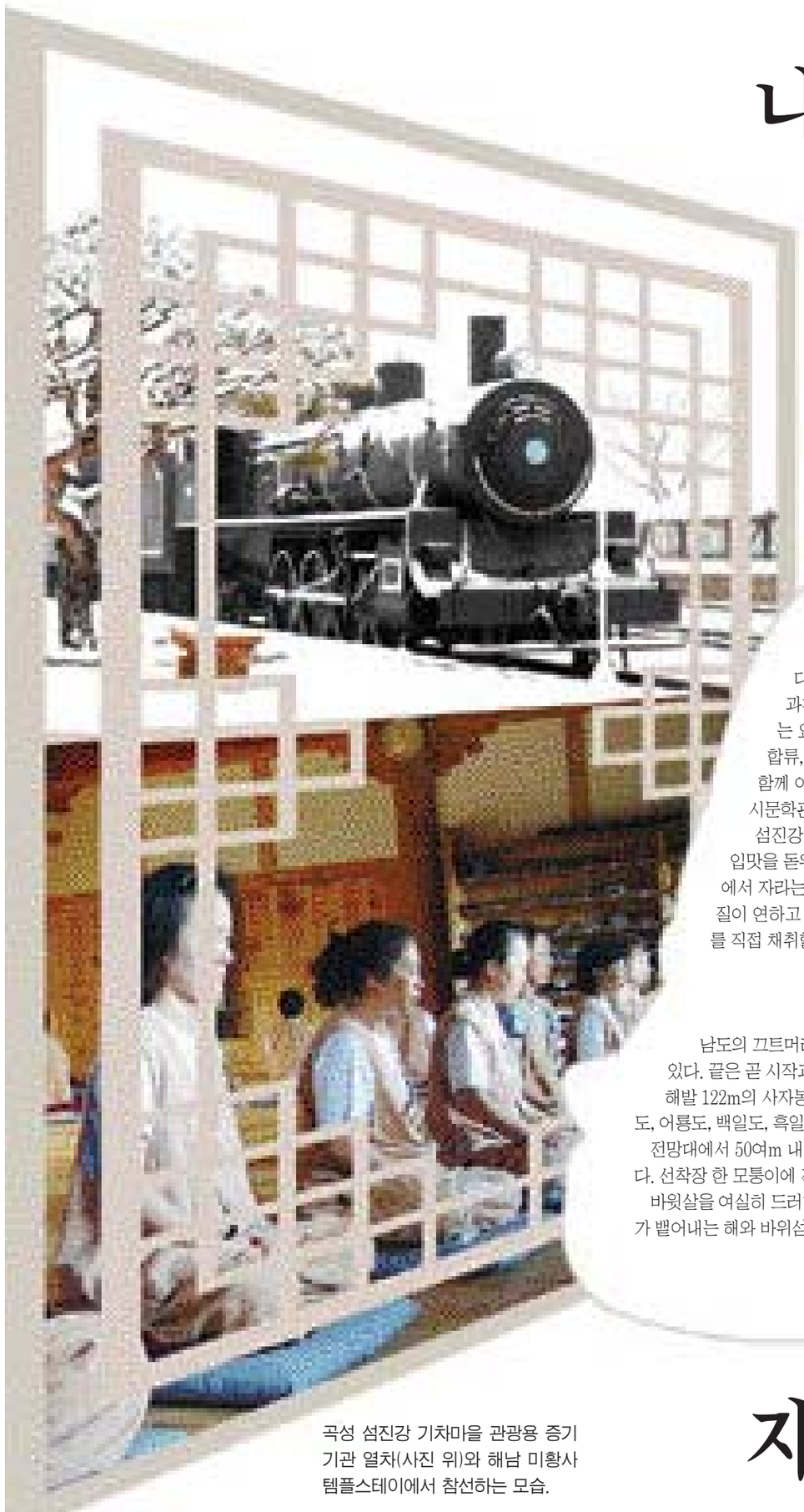
남도의 끄트머리 해남, 그 중에도 땅끝마을이라 불리는 갈두리로 들어서면 뭔가 남다른 느낌이 있다. 끝은 곧 시작과 맞물리니 이곳은 땅의 끝이 아니라 땅의 시작이라고 보아야 옳을 지도 모른다.

해발 122m의 사자봉에 세워진 전망대에 올라보면 남쪽으로는 완도군 노화도와 보길도, 서쪽으로는 진도, 어룡도, 백일도, 흑일도, 조도 등 20여 개의 섬들이 앞에 도열해 있다.

전망대에서 50여m 내려가면 '토말비'가 눈에 띄고, 계단을 따라 15분 정도 거리에 '땅끝탑'이 기다리고 있다. 선착장 한 모퉁이에 잔 풀과 채 크기도 전에 늙어버린 소나무 몇 그루만 덩그러니 있는 바위섬이 있다.

바윗살을 여실히 드러내 맨섬이라고도 하고 두 섬이 서로 닮아 형제섬이라고도 부른다, 두 섬 사이로 땅끝바다가 뱉어내는 해와 바위섬 위에서 손짓하듯 드리워진 소나무 가지의 어루러짐은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관광용 증기기관 열차(사진 위)와 해남 미황사 템플스테이에서 참선하는 모습.

자연은 내속으로

해남 땅끝 일출